

## 太陰人 處方의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배효상\* · 박성식\*

### Abstract

## The study on history of prescription through comparison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Sasang-Yihak-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pobon

Bae Hyo-sang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tch the expansion of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Sasang-Yihak-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pobon

### 2. Method

I studied the archive of prescription and medicines concerned in the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Sasang-Yihak-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pobon

### 3. Result and conclusion

1. The principle which select the Sasang-in Prescription in Dongmuyugo is Hyung-Choei-Eik-Mi(馨臭液味) and Seung-Gang-Gae-Hap(升降開闔)
2. The same Medicine in Dongyi-Soose-Bowon Chopanbon and Sasang-Yihak-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pobon is 27 and this medicines are the principle medicine in the Taiyin Disease
3. The same Herb-Medication in the Sasang-Yihak-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pobon is 4 and the concept in the Sasang-Yihak-Chobonguen is succeeded to Dongyi-Soose-Bowon Gapobon
4. The same Herb-Medication in the Dongyi-Soose-Bowon Gapobon and Dongyi-Soose-Bowon Chopanbon is 7 and the Change between the Dongyi-Soose-Bowon Gapobon and Dongyi-Soose-Bowon Chopanbon is the cognition between the Pyozeung(表證) and Lizeung(裏證) in the disease
5. There is no same Herb-Medication in that three books. This result can prove that the Dongyi-Soose-Bowon Chopanbon's New Herb-Medication(新定方) was made in the last stage of Sasng-Yihak

Key words : comparisoin, Dongyi-Soose-Bowon Chopanbon, Dongyi-Soose-Bowon Gapobon, Sasang-Yihak-Chobonguen,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배효상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37

E-mail)bhs70@hitel.net

## I 緒論

현재까지 알려진 李濟馬와 관련된 서적은 『東武遺稿』, 『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sup>1)</sup>, 『東醫壽世保元 初版本』<sup>2)</sup>, 『東醫四象新編』이다. 이러한 서적들의 각 체질별 藥物과 處方을 살펴보면 『東武遺稿』에서 『東醫四象新編』까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 나오는 新定方은 李濟馬의 독창적인 處方도 있지만, 기존의 處方에서 발전시켜 나온 處方들도 있다. 이러한 處方들은 모두 한번에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東武가 각 體質別로 藥物을 설정하고, 다년간 醫藥經驗과 실천을 통해 연구하고 검증하며 점차 완전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四象人 중 太陰人 處方은 『草本卷』,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 處方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면 東武의 處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太陰人 處方의 초기 處方과 후기 處方을 비교하여 處方의 형성과정을 파악해 보려 하였다.

處方을 立方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藥物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러한 藥物의 분류기준이 기재된 책은 『東武遺稿』와 『東醫四象新編』이 있다. 『東武遺稿』에서는 肺藥으로 62종의 藥物을 분류해 놓았고, 四象人 藥材類 太陰人 藥物로 27종의 藥物을 제시하고 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111개의 太陰人 要藥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醫四象新編』 太陰人 要藥이 東武의 藥物 선택으로 보기에 藥物만 분류되어 있을 뿐 일말의 선택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東武遺稿』는 27종의 藥物을 太陰人 藥材類로 분류하면서 각 藥物에 대하여 藥性歌를 제시하였고, 藥物의 藥性에 대한 논제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東武遺稿』에서 李濟馬가 太陰人 藥物을 선택하는 기준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藥物은 『草本卷』,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을 거치면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 변화의 과정을 新定方

에 사용된 藥物을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은 31개의 處方이 있으며,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은 17개의 處方이며,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은 24개의 處方이 있다. 東武의 초기 處方은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으로 설정하였으며, 후기 處方은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변화과정의 순서는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의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處方의 비교는 同名處方을 위주로 하였으며 『草本卷』에서 『初版本』에 이르기까지 同名의 處方이 있는 경우 『草本卷』의 處方이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處方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교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II 本論

### 1. 『東武遺稿』의 太陰人 藥物 선택 기준

『東武遺稿』에는 肺藥이라고 분류된 62개 藥物<sup>3)</sup>과 四象人 藥材類에서 太陰人으로 구분된 27개의 藥物이 있다. 肺藥이라고 분류된 62개의 藥物은 東武先師 四象藥性 實驗古歌라 하여 藥性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濟衆新編, 方藥合編의 醫宗損益藥性歌, 醫學入門의 藥性歌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東武가 藥性を 四象醫學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각 체질에 맞는 藥을 기존 藥性歌에서 고르는 작업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四象人 藥材類는 기존 藥性歌와는 다르게 東武式 사고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肺藥이라고 구분한 藥物에서 四象人에 가장 알맞은 藥材를 뽑아 그에 대한 藥性を 東武식 사고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四象人에 맞는 약재를 선택하는 근거를 『東武遺稿』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馨臭液味

『東武遺稿』 總論에 “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歸於肝 味歸於腎”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肺, 脾, 肝, 腎에 歸하는 藥性を 제시한다. 또한 “藥物之性 厚馨者 歸於肺 厚臭者 歸於脾 厚沃者 歸

1) 이하 『甲午本』이라 한다.

2) 이하 初版本이라 한다.

3) 鹿角膠와 鹿角을 따로 구분하여 세었다.

於肝 厚味者 歸於腎 是故 黃柏木通山茱萸等屬 其味深吸 而入於腎 麥門冬五味子石菖蒲等屬 其馨輕清而浮於肺 官桂附子白朮當歸等屬 其臭猛烈 而壯於脾 蕎麥葡萄木瓜等屬 其液綠淫 而緩於肝 以此而推 則百草可當而知之也.”라 하여 馨臭液味の 구분에 따른 구체적 藥物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太陰人에 대한 藥物의 기본 藥性을 유추할수 있는데, 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약으로 東武가 설정한 것은 麥門冬 五味子 石菖蒲 等屬이다. 이 “馨”의 의미는 그 향기가 멀리 미치는 藥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東武遺稿」 總論에서 “肺虛者 肝必實 肝實肺虛者 名曰 太陰人”이라 하여 太陰人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東武遺稿」 四象要目에서 “肝大 吸聚之氣太過也 肺小 呼散之氣不足也.”라고 제시한 過不足상태를 해결하려는 개념으로 馨이라는 藥性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太陰人이 肝大肺小한 체질적 특징으로 呼散之氣가 不足하고 吸聚之氣가 太過한 것을 향기가 멀리 퍼지는 약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 2) 升降開闔

『東武遺稿』 總論에서 四臟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肺以開 肝以闔 肺肝者 開闔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也”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각 臟腑에 病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 藥物 선택의 근거를 升降開闔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闔氣多而開氣少한 肺의 病은 通하는 藥物을, 開氣多而闔氣少한 肝의 病은 塞하는 藥物을, 降氣多而升氣少한 脾의 病은 升力이 有餘한 藥物을 升氣多而降氣少한 腎의 病은 降力이 有餘한 藥物을 들고 있다.<sup>4)</sup>

4)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醫學史. 1999. p165-167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高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熊膽麝香麻黃杏仁山藥桔梗黃芩皂角之類 通力有餘故肺病之吉藥也 蕎麥葡萄木瓜黃芪甘草之類 塞力有餘故肺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葡萄黃芪甘草五加皮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參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菖蒲連澤瀉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여기서 제시한 太陰人의 肺之病을 해결하려고 든 藥材는 牛黃, 熊膽, 麝香, 麻黃, 杏仁, 桔梗, 黃芩, 皂角之類이며, 이 藥에 대한 기본 藥性을 「東武遺稿」에서는 通하는 藥으로 설명한다. 또한 蕎麥 葡萄 木瓜 黃芪 甘草之類는 塞力이 有餘하므로 肺病에는 凶藥이라 제시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를 해결하려고 제시한 升力이 有餘한 藥物 중에 鹿茸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鹿茸은 「壽世保元」에서 太陰人에게 사용하고 少陰人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첫째 「東武遺稿」가 東武의 초기 생각이라는 추측의 一末을 제시하며, 둘째 東武가 四象人의 病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藥物에 변화가 보이며, 끊임없이 藥物 선택에 대해 고심했다는 사실을 反證한다.

## 2.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藥物 비교

### 1) 『草本卷』의 太陰人 新定方의 藥物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に 쓰인 藥物은 桔梗, 黃芩, 麥門冬, 五味子, 杏仁, 葛根, 蘿菈子, 天門冬, 升麻, 麻黃, 白芷, 酸棗仁, 石菖蒲, 元肉, 大黃, 山藥, 薏米, 遠志, 栝子仁, 黃栗, 乾栗, 桑本, 蓮子肉, 甘菊, 椿皮, 側柏葉, 款冬花, 鹿角膠, 白果, 白茅根, 浮萍, 麝香, 生藕節, 荔枝核, 龍骨, 牛黃, 熊膽, 榜根白皮, 皂角, 地榆, 青礞石의 41종이다.

이 중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に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桔梗과 黃芩으로 31개의 處方 중에서 20개의 處方に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31개의 處方 중에서 10개 이상의 處方に 사용된 藥物은 麥門冬(18개의 處方), 五味子(14개의 處方), 杏仁(14개의 處方), 葛根(11개의 處方), 蘿菈子(11개의 處方) 天門冬(10개의 處方)이다.

### 2) 『甲午本』의 太陰人 新定方의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に 쓰인 藥物은 桔梗, 黃芩, 麥門冬, 五味子, 酸棗仁, 升麻, 杏仁, 葛根, 大黃, 天門冬, 麻黃, 山藥, 白果, 遠志, 黃栗, 甘菊, 款冬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柏山茱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參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



중에서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新定方に 쓰이지 않는 藥物은 黃粟 1종이다. 「初版本」 新定方에서는 「甲午本」 新定方 29종의 藥物에서 1종의 藥物을 제외하고 藜本, 瓜蒂, 金箔, 蘿菔子, 大豆黃卷, 白斂, 使君子, 桑白皮, 犀角, 羚羊角, 烏梅, 龍腦, 薏苡仁, 鱉蟾, 蒲黃, 乾栗의 16종 藥物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草本卷」 41개의 藥物중 「初版本」에 사용된 藥物은 31개이며 13개의 藥物이 「初版本」에서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 중 특이한 것은 藜本, 薏苡仁, 乾栗, 蘿菔子 4개의 藥物인데, 이 藥物

들은 「草本卷」에서 「甲午本」을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初版本」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草本卷」에서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 4.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同名處方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同名處方은 升麻開腸湯, 天門冬潤肺湯, 清心山藥湯, 黃粟五味子齋의 4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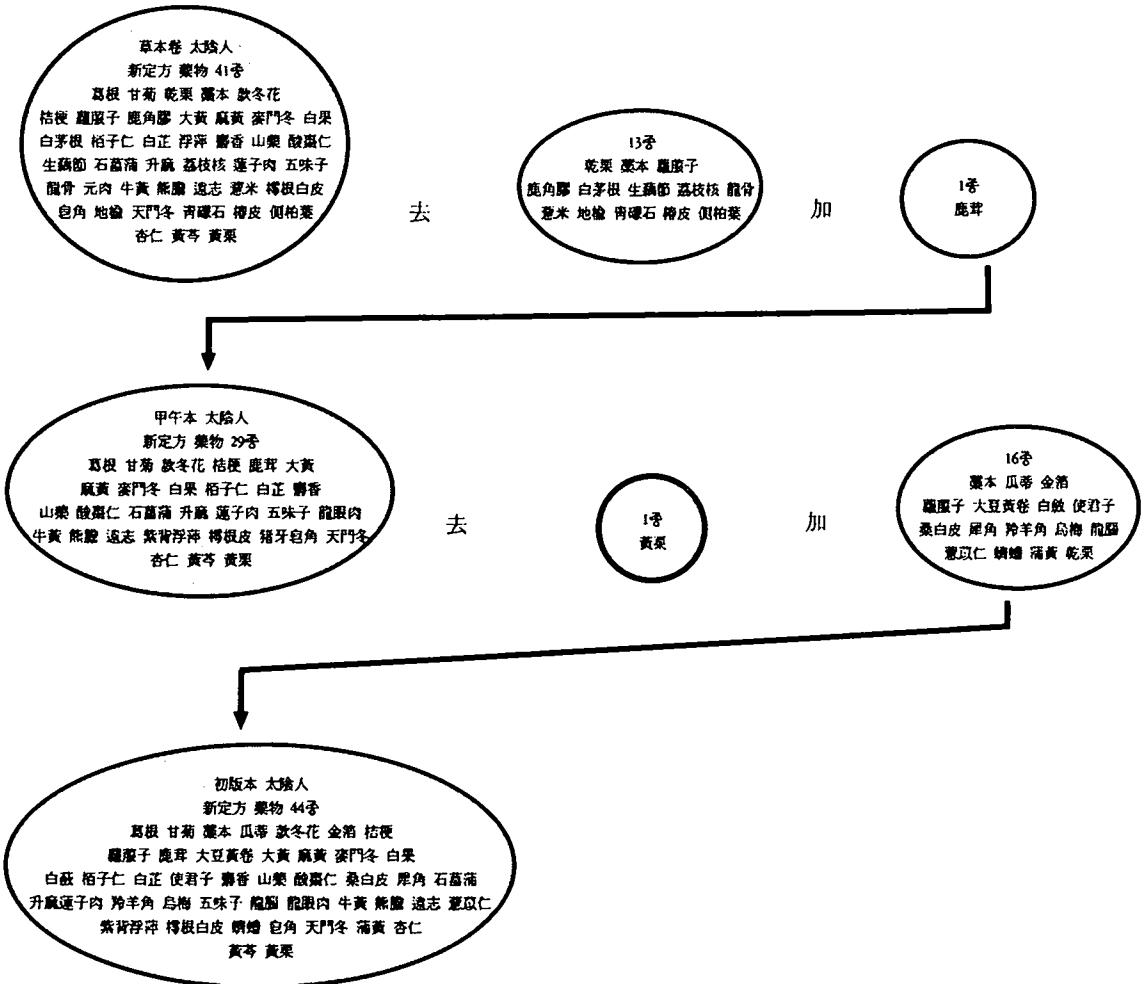


그림1.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太陰人 藥物의 가감에 따른 변화

비고) 1. 龍眼肉과 元肉은 龍眼肉으로 통일하였다. 2. 浮萍과 紫背浮萍은 浮萍으로 통일하였다. 3. 薏苡仁과 薏米는 薏苡仁으로 통일하였다. 4. 檉白皮, 檉根皮, 檉根白皮, 小白皮는 檉根白皮로 통일하였다. 5. 皂角과 豬牙皂角은 皂角으로 통일하였다. 6. 乾栗과 黃粟을 따로 구분하였다.

1) 升麻開腦湯

<단위 : 錢>

藥物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升麻	3	3
麥門冬	1	1
大門冬	1	1
五味子	1	1
酸棗仁	1	1
黃芩	1	1
麻黃	1	1
桔梗	1	1
杏仁	1	1
葛根	1	1
款冬花	1	1
白芷	1	1
大黃	1	1

2) 天門冬潤肺湯

<단위 : 錢>

藥物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天門冬	3	3
黃芩	2	2
麥門冬	1	1
酸棗仁	1	1
升麻	1	1
葛根	1	1
桔梗	1	1
杏仁	1	1
五味子	1	1
大黃	1	1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の 升麻開腦湯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升麻開腦湯은 藥物구성과 용량이 동일하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에서 升麻開腦湯은 寒厥四五日汗不出者를 치하는데 사용되었고,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升麻開腦湯은 “太陰人病 寒厥 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者 危證也 當用葛根解肌湯 調下熊膽 三分 又連用葛根解肌湯 二三服 翌日 則晝服桔梗生脈散 夜服葛根解肌湯 每日如此服 或八九日十餘日 以至於病快解 若熊膽材 則當用升麻開腦湯 二三服”<sup>5)</sup>이라하여 寒厥에 사용하였다. 이 「甲午本」의 조문은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 “12-9 論曰 太陰人病 寒厥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者 險證也 當用熊膽散 或 寒多熱少湯 加鱗蝟五七九介 大便 消者 必用乾栗薏苡仁等屬 大便 燥者 必用葛根大黃等屬 若額上眉稜上有汗 則待其自愈 而病解後 用藥調理 否則恐生後病”으로 바뀌게 된다. 즉 升麻開腦湯으로 寒厥을 다루어 보려고 했던 東武의 생각이 熊膽散과 寒多熱少湯으로 변하게 되면서 升麻開腦湯은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の 天門冬潤肺湯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天門冬潤肺湯은 藥物구성과 용량이 동일하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の 天門冬潤肺湯은 目痛, 鼻乾, 憎寒壯熱, 頭痛, 腰痛燥澁者를 치하는데 사용되었고,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天門冬潤肺湯도 目痛 鼻乾 增寒壯熱 燥澁者<sup>6)</sup>에게 사용하였다. 이에 관련된 「甲午本」 조문인 “二二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目痛 鼻乾 增寒壯熱 燥澁者 當用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者 當用桔梗生脈散”은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 “13-11.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 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 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咳嗽 粘稠噴嚏” “13-12.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燥澁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頰 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으로 바뀌게 된다.

주목할만 한 사실은 「甲午本」 二二條는 「甲午本」에서 太陰人 外感腦顛病論에 기재되어 있으나, 「初版本」 13-11조와 13-12조는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東武가

5) 咸山沙寸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九條

6) 咸山沙寸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二二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目痛 鼻乾 增寒壯熱 燥澁者 當用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者 當用桔梗生脈散”

「甲午本」에서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한 정신이 「初版本」으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太陰人の 表病과 裏病의 구분이 「甲午本」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으며, 「初版本」으로 오면서까지 계속적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天門冬潤肺湯은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다.

3) 清心山藥湯

<단위 : 錢>

藥物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山藥	3	3
遠志	2	2
天門冬	1	1
麥門冬	1	1
蓮子肉	1	1
栝子仁	1	1
酸棗仁	1	1
龍眼肉	1	1
桔梗	1	1
黃芩	1	1
石菖蒲	1	1
甘菊	0.5	0.5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の 清心山藥湯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清心山藥湯은 藥物구성과 용량이 동일하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の 清心山藥湯은 虛勞, 夢泄, 腹痛, 泄瀉, 舌卷不語中風等證을 治하는데 사용하였고,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清心山藥湯은 舌卷不語中風病, 夢泄病, 虛勞<sup>7)</sup>에 사용하였다. 「甲午本」에서 清心山藥湯이 病證論에서 사용된 예는 太陰人 內觸胃脘病論 六條와 七條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두 조문은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는 “太陰人證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 虛勞重證也 大便秘一日 則宜用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大便 每日 不秘 則加龍骨減大黃 或用拱辰

7) 咸山沙寸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內觸胃脘病論  
 六條 太陰人 一證 無腹痛 下利 而有舌卷不語 中風病 危急病也 不可瞬息遲滯而急治 當用牛黃救急 因用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  
 七條 太陰人 一證 有夢泄病 其病爲 虛勞 而思慮所傷也 太重且難 不可不急治 必禁嗜欲 戒侈樂 此證 當用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加龍骨 一錢

黑元丹鹿茸大補湯 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으로 바뀌면서 清心山藥湯은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虛勞와 夢泄에 대한 東武의 인식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東武遺稿」에서는 夢泄과 虛勞를 太陰人에게서 위험한 증상으로 인식하고, 麥門冬, 天門冬, 山藥, 五味子, 遠志, 酸棗仁, 黃芩 혹은 여기에 栝根白皮 一錢을 加하여 20~30첩을 간간이 먹는데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sup>8)</sup> 그러나 「草本卷」에서는 太陰人の 夢泄은 그 증상이 보통이지만, 太陽人の 夢泄은 그 증상이 심상치가 않다<sup>9)</sup>라고 「東武遺稿」와 다른 견해를 보인다. 「甲午本」에서는 虛勞와 夢泄을 裏之裏病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病勢가 急하며 難治라고 하였다.<sup>10)</sup> 「初版本」에서는 太陰人の 夢泄이 1개월에 3~4차례 발생하는 것은 虛勞의 重證이라고 인식하고 大便秘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熱多寒少湯 加大黃 1錢의 處方을 입방하고, 大便秘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熱多寒少湯 加 龍骨 減 大黃을 사용하거나 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의 處方을 입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東武의 太陰人 裏病에 대해 「東武遺稿」와 「草本卷」에서 「甲午本」을 거치면서까지 정립이 안되었으며, 「初版本」에 와서 일부분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清心山藥湯에 쓰이는 麥門冬, 天門冬, 山藥, 遠志, 酸棗仁은 「東武遺稿」의 觀點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며,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는 太陰人 裏證인 燥熱證에 사용하는 熱多寒少湯과 陰血耗渴證에 사용하는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을 立方하고

8)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醫學史, 1999. p215  
 太陰病 “太陰人之危症 夢泄即虛勞也 麥門冬天門冬山藥五味子遠志酸棗仁黃芩 感加栝根白皮一錢 二三十貼 間間服之 此外無他術也”  
 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原人手抄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1999. p19  
 “B.6.23 太陰人有夢泄其症自尋常 太陽人有夢泄其症不尋常.”  
 10) 咸山沙寸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內觸胃脘病論  
 九條 “太陰人 惡寒 發熱 長感病 爲表之表病 陽毒燥 爲表之裏病 腹痛 自利 食滯痞滿 痢疾 浮腫 爲裏之表病 虛勞 夢泄 與無腹痛中風 爲裏之裏病 表裏之表病 其勢緩 而易治 表裏之裏病 其勢急 而難治”

는 것이다.

#### 4) 黃栗五味子膏

藥物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黃栗	100 枚	100 枚
五味子	30 粒	30 粒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의 黃栗五味子膏와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의 黃栗五味子膏는 藥物 구성과 용량이 동일하다.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의 黃栗五味子膏의 主治는 浮腫이다. 『甲午本』에서는 浮腫에 대하여 그 病이 太重하며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黃栗五味子膏를 처방하였다. 또한 浮腫이 생겨서 黃栗 2~3斗를 복용 후 설사를 5~6일 크게 하고 나면 病이 풀리나, 浮腫은 危證이라 3년 내에 재발하지 않은 후에야 살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sup>11)</sup> 그러나 『初版本』에서는 浮腫에 乾栗蠶蟻湯을 제시하며<sup>12)</sup>, 黃栗五味子膏는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인 升麻開腦湯, 天門冬潤肺湯, 清心山藥湯, 黃栗五味子膏의 4개 處方은 그 藥物의 용량과 종류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또한 그 主治에 대한 설명도 동일한데 이 사실은 『草本卷』과 『甲午本』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11) 咸山沙寸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內屬胃脫病論

四條 “太陰人 一證 有腹脹 浮腫病 其病太重而危也 不可不急治 常用黃栗五味子膏 浮腫始發 黃栗二三斗 灸食煮食 則泄瀉五六日天下 而病愈 然浮腫危證也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禁嗜慾 戒侈樂 調養攝身之道 必在其人”

12)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

“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乾栗蠶蟻湯 此病 極危險 證而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 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 而以<sup>1)</sup>死論之 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腿脚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 而此時 已浮腫論 而瀉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 可也”

同名處方은 『草本卷』에서 설정한 處方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 5.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은 葛根解肌湯, 麻黃發表湯, 麻黃定喘湯, 麝香散, 能膽散, 清心蓮子湯, 皂角大黃湯의 7개이다.

##### 1) 葛根解肌湯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東醫 醫鑑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葛根	3	1	3
升麻	2	1	1
桔梗	1	1	1
黃芩	1	1	1.5
杏仁	1		
酸棗仁	1		
白芷	1	1	1
大黃	1		
藥本			1.5
白芍藥		1	
柴胡		1	
羌活		1	
石膏		1	
甘草		0.5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의 葛根解肌湯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葛根解肌湯은 藥物의 종류와 용량에 변화가 있다. 『甲午本』에서는 葛根 三錢 升麻 二錢 桔梗 黃芩 杏仁 酸棗仁 白芷 大黃 各一錢이 쓰였고, 『初版本』에서는 升麻의 용량이 1錢 줄고, 黃芩의 용량이 0.5錢 늘었으며, 杏仁 酸棗仁 大黃이 빠지고, 藥本 1.5錢이 가해져서 葛根 三錢 黃芩 藥本 各一錢五分 桔梗 升麻 白芷 各一錢으로 구성된다.

東武는 『東醫寶鑑』에서 陽明形證用藥에 기재된

『古今醫鑑』의 葛根解肌湯의 主治인 陽明經病이 太陰人의 병태로 인식하고 陽明經病 目疼 鼻乾 不得臥의 病證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예는 『甲午本』 14조와 『初版本』 13-3조에 모두 기재되었다. 즉 東武가 『草本卷』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陽明經病에 葛根解肌湯을 사용하는 정신은 『甲午本』에서 시작되어 『初版本』에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甲午本』 14조는 太陰人 外感腦髓病論에서 설명하고 있고, 『初版本』 13-3조는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東武의 表病과 裏病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反證한다. 이는 『甲午本』에 기재된 葛根解肌湯 관련 조문<sup>13)</sup>은 모두 太陰人 外感腦髓病論에서 설명하고 있고, 『初版本』에 기재된 葛根解肌湯 관련 조문<sup>14)</sup>은 모두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甲午本』 조문 중 3조, 9조, 15조는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지게 되고, 22조는 수정이 가해진다. 이로써 葛根解肌湯을 表證 중 寒厥에 사용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初版本』 13-12조에 보듯이 寒厥에 대한 病證은 太陰調胃湯을 사용하거나 寒多熱少湯에서 해결하려 하였고, 表證인 微惡寒發熱과 表裏兼證인 體熱腹滿自利 熱勝한 證에 葛根解肌湯을 사용하려는 정신이 남게 된다. 裏證에 대한 葛根解肌湯의 사용은 『甲午本』 11조, 12조, 14조와 『初版本』 13-1조, 13-2조, 13-3조, 13-4조, 13-5조에서 보듯이 陽毒發斑 하는 證과 陽明病을 해결하려는 데서 파악할 수 있다.

13) 甲午本 葛根解肌湯 관련조문

「太陰人 外感腦髓病論」  
 三條. 今考更定 此證 不當用桂麻各半湯 當用葛根解肌湯  
 九條. 今考更定 太陰人病 寒厥 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者 危證也 當用葛根解肌湯 調下熊膽三分 又連用葛根解肌湯 二三服 翌日 則證服桔梗生脈散 夜服葛根解肌湯 每日如此服 或八九日十餘日 以至於病快解 若熊膽闕材 則當用升麻開腦湯 二三服  
 十一條. 朱肱曰 陽毒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 尚緩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十二條. 李梴曰 微惡寒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鼻乾 潮汗閉澁 滿渴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 則目疼不眠 宜解肌湯 熱入裏 則狂譫 宜調胃承氣湯  
 十四條.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十五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當用葛根解肌湯 黑奴丸 藥不可以不盡善擇美 則此證 當用加減解肌湯 皂角大黃湯

14) 初版本 葛根解肌湯 관련조문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  
 13-1. 朱肱曰 陽毒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 尚緩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13-2. 李梴曰 微惡寒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鼻乾 潮汗閉澁 滿渴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 則目疼不眠 宜解肌湯 熱入裏 則狂譫 宜調胃承氣湯

2) 麻黃發表湯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桔梗	3	3
黃芩	2	1
麥門冬	2	1
五味子	1	
麻黃	1	1.5
杏仁	1	1
白果	3枚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的 麻黃發表湯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的 麻黃發表湯의 藥物 용량과 종류에는 변화가 있다. 『甲午本』에서는 桔梗 三錢 黃芩 麥門冬 各二錢 五味子 麻黃 杏仁 各一錢 白果

- 13-3. 龔信曰 陽明病 目疼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 13-4. 三陽病 深 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 洪大 宜黑奴丸
- 13-5. 論曰 右諸證 當用葛根解肌湯黑奴丸
- 13-11.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咳嗽 稠粘噴嚏
- 13-12.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燥澁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 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三枚가 쓰였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의 處方에서 黃芩과 麥門冬을 1錢씩 줄이고, 麻黃을 0.5錢 늘였으며, 五味子와 白果를 去하여 桔梗 三錢 麻黃 一錢五分 麥門冬 黃芩 杏仁 各 一錢이 쓰였다. 이 處方은 麻黃湯에서 출발하여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하는 證에 대해 太陰人에 필요없는 甘草와 桂枝를 去하고 입방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甲午本」麻黃發表湯 관련조문<sup>15)</sup>은 모두 太陰人 外感腦頤病論에 기재 되어 있고, 「初版本」麻黃發表湯 관련조문<sup>16)</sup>은 모두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에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麻黃發表湯은 「甲午本」에서부터 表病 處方으로 인식하고, 이 개념이 「初版本」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甲午本」에서는 麻黃發表湯을 사용하는 證을 外感表病 輕證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初版本」에서는 太陰人 傷寒背頤表病輕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甲午本」 당시까지 證治에서 설명하는 外感이라는 개념이 太陰人 傷寒背頤表病輕證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한층 더 四象人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3) 麻黃定喘湯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龔信 萬病回春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麻黃	3	3	3
款冬花	2	1	1
麥門冬	2		1
杏仁	1	1.5	1.5
升麻	1		
葛根	1		
桔梗	1		1
黃芩	1	1	1
五味子	1		
白果	10枚	21枚	21개
桑白皮		1	1
蘿菴子			1
半夏		1	
蘇子		1	
甘草		1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麻黃定喘湯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の 麻黃定喘湯은 그 藥物의 종류와 용량에서 변화가 있다. 「甲午本」의 麻黃定喘湯은 麻黃 三錢 款冬花 麥門冬 各二錢 杏仁 升麻 葛根 桔梗 黃芩 五味子 各一錢 白果 十枚가 쓰였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 處方에서 款冬花와 麥門冬을 1錢씩 줄이고, 杏仁을 0.5錢 늘였으며, 白果 11개를 加하고, 升麻 葛根 五味子를 去, 桑白皮 蘿菴子 1錢씩 加하여 麻黃 三錢 杏仁 一錢五分 黃芩 蘿菴子 桑白皮 桔梗 麥門冬 款冬花 各一錢 白果 二十一箇炒黃色가 쓰였다.

「甲午本」의 病證論에서는 麻黃定喘湯의 用례가 없으며, 「初版本」에서는 哮喘病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sup>17)</sup>. 麻黃定喘湯의 원방이 된 龔信 「萬病回春」의 定喘湯은 麻黃 三錢 杏仁 一錢半 黃芩 半夏 桑白皮 蘇子 款冬花 各一錢 甘草 一錢 白果 二十一箇로 구성되어 있고, 主治는 哮喘와 喘急이다. 「甲午本」에서보다 「初版本」이 원 處方에 가까우며 이는 李濟馬가 處方을 사용해 보고 加減을 다시

#### 15) 甲午本 麻黃發表湯 관련조문

「太陰人 外感腦頤病論」

一條. 張仲景曰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 主之 ○ 註曰 傷寒 頭痛 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 俱痛者 此 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二條. 今考更定 此證 麻黃湯 非不當用 而桂枝 甘草 皆爲蠶材 欲收全功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傷寒頭痛 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俱痛者 卽太陰人 外感表病 輕證也

#### 16) 初版本 麻黃發表湯 관련조문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12-1. 張仲景曰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 主之 ○ 註曰 傷寒 頭痛 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 俱痛者 此 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12-2. 論曰 此 卽太陰人 傷寒背頤表病輕證也 此證 麻黃湯 非不當用 而桂枝 甘草 皆爲蠶材 此證 當用麻黃發表湯

#### 17) 初版本 麻黃定喘湯 관련조문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

13-29. 太陰人證 有哮喘病 重證也 當用麻黃定喘湯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葛根에 대한 加減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甲午本』에서는 葛根이 麻黃定喘湯, 葛根解肌湯, 升麻開腦湯, 天門冬潤肺湯, 鹿茸潤肺湯, 鹿茸大造湯에서 쓰였다. 이 處方들 중 葛根解肌湯, 升麻開腦湯, 天門冬潤肺湯은 表病에서 그 용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麻黃定喘湯, 鹿茸潤肺湯, 鹿茸大造湯은 그 용례가 없다. 『初版本』에서는 葛根이 葛根解肌湯, 熱多寒少湯, 葛根承氣湯, 皂角大黃湯, 葛根浮萍湯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裏病에서 그 용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葛根에 대해 『甲午本』까지는 表病과 裏病에 대한 용례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初版本』에 오면서 裏病에 대한 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麝香散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麝香	0.3	0.3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の 麝香散은 藥物의 종류와 용량이 같다. 『甲午本』 病證論과 『初版本』 病證論에서는 麝香散의 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初版本』 太陰人 病證論에서 “中毒吐瀉 宜用麝香”이라 하여 麝香의 용례를 기재하고 있다.<sup>18)</sup> 效能은 除肺之久病이고, 主治는 太陰人의 中毒吐瀉, 急腹痛이며 氣痛氣鬱證에도 쓸 수 있다.<sup>19)</sup>

5) 熊膽散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熊膽	0.3	0.3~0.5

『甲午本』 熊膽散과 『初版本』의 熊膽散은 藥物의 종류가 같다. 『甲午本』 병증론에서 熊膽散의 용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初版本』에 기재된 조문을 살펴보면 寒厥이 심한 증상과 面色靑白而素

有寒證表虛者가 卒中風으로 人事不省인 경우 등에 熊膽 한가지 藥物만을 이용하여 치료에 응용한 處方이다.<sup>20)</sup> 이 處方은 素證寒證의 太陰人에게 적당한 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肺와 胃脘이 虛寒하여 脾胃의 升陽작용이 방해를 받는 체질적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中風에 걸리면 眼合證과 拘攣證이 생기게 된다.<sup>21)</sup>

20) 初版本 熊膽散 관련조문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12-9. 論曰 太陰人病 寒厥四日而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無汗者 險證也 當用熊膽散 或 寒多熱少湯 加蟬蟬五七九介 大便 滑者 必用乾栗慈苳仁等屬 大便 燥者 必用葛根大黃等屬 若額上眉稜上有汗 則待其自愈 而病解後 用藥調理 否則恐生後病

12-11. 有一太陰人素病 咽嗑乾燥 而面色靑白 表寒或泄 齒咽嗑乾燥者 肝熱也 面色靑白 表寒或泄者 胃脘寒也 此病 表裏俱病 素病之太重者也 此人得瘧病 其證 自始發日至于病解 二十日 大便初滑或泄 中滑 末乾 每日二三四次 無日不通 初用寒多熱少湯 病解後 用調理肺元湯 四十日調理 僅僅獲生 ○ 此病 始發 大便 或滑或泄 而六日內 有額汗眉稜汗顙汗 飲食起居 有時如常 六日後 始用藥 七日 全體面部髮際以下 至于唇頤 汗流滿面 淋漓洽足而汗後 面色帶靑 有語訥證 八日九日 語訥耳聾 而昏汗 還爲顙汗 顙汗 還爲眉稜汗 汗出微粒 乍出乍入 而只有額汗 呼吸 短喘矣 至于十日夜 額汗 還入而語訥耳聾 尤甚 痰涎 藥喉 口不能咯 病人 自以手指探口拭之而出 十一日 呼吸短喘 尤甚 至于十二日 忽然食粥二碗 斯時 若論其藥 則熊膽散 或者可也 而熊膽闕材 自念此人 今夜必死矣 當日初昏 呼吸 暫時少定 十三日 鷄鳴時 髮際有汗 十四日 十五日 連三日 食粥二三碗 額汗眉稜汗 顙汗 次次發出 面色 脫靑 十六日 顙汗 始通 稍能咯痰 語訥亦愈 至于二十日 顙汗 數次大通 遂能起立房中 諸證 皆安 而耳聾證則自如也 病解後 用藥調理四十日 耳聾目迷自祛 ○ 面色靑白而素有寒證表虛者 卒中風 則當用熊膽散 牛黃清心元 石菖蒲遠志散 而不可用瓜蒂散

18) 初版本 太陰人 病증론에 기재된 麝香의 용례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13-36. 中毒吐瀉 宜用麝香

19) 李濟馬. 四象醫學.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집문당. 1998. p522

21) 四象醫學.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집문당. 1998. p537~538

6) 淸心蓮子湯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蓮子肉	3	2
麥門冬	2	1
天門冬	1	1
山藥	1	2
遠志	1	1
栝子仁	1	1
酸棗仁	1	1
龍眼肉	1	1
桔梗	1	
黃芩	1	1
石菖蒲	1	1
甘菊花	0.5	0.3
蘿菔子		1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淸心蓮子湯과 『初版本』의 淸心蓮子湯은 藥物的 종류와 용량이 변하게 된다. 『甲午本』 處方은 蓮子肉 三錢 麥門冬 二錢 天門冬 山藥 遠志 栝子仁 酸棗仁 龍眼肉 桔梗 黃芩 石菖蒲 各一錢 甘菊花 五分이 쓰였으며, 『初版本』 處方은 『甲午本』 處方에서 蓮子肉과 麥門冬을 각각 1錢씩 줄이고, 甘菊花 0.3錢을 사용하며, 山藥의 용량을 1錢 늘리고, 桔梗을 去하고, 蘿菔子 1錢을 加하여 蓮子肉 山藥 各二錢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蒲 酸棗仁 龍眼肉 栝子仁 黃芩 蘿菔子 各一錢 甘菊花 三分이 쓰였다.

『甲午本』에서는 「太陰人 內觸胃脘病論」六條와 七條에서 舌卷不語 中風病, 夢泄病, 虛勞에 사용하는 용례가 있으나, 『初版本』 病證論에서는 淸心蓮子湯의 용례가 없다. 『甲午本』에 기재된 淸心蓮子湯 관련조문은 “六條. 太陰人 一證 無腹痛 下利 而有舌卷不語 中風病 危急病也 不可瞬息遲滯而急治 當用牛黃救急 因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七條. 太陰人 一證 有夢泄病 其病爲 虛勞 而思慮所傷也 太重且難 不可不急治 必禁嗜欲 戒侈樂 此證 當用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加龍骨 一錢”이다. 이 2조문은 『初版本』에서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 “太陰人 證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 虛勞重證也 大便秘 一日 則宜用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大便 每日 不秘 則加龍骨減大黃 或用拱辰黑元丹鹿茸大補湯 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으로 변하면서 淸心蓮子湯의 용례가 사라지게 된다.

淸心蓮子湯은 『草本卷』의 九味天門冬湯과 藥物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甲午本』의 淸心山藥湯과 『甲午本』의 淸心蓮子湯은 그 藥物 구성이 동일하며 용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草本卷』 九味天門冬湯의 主治는 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이며, 『甲午本』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의 主治는 舌卷不語中風病, 夢泄病, 虛勞이다. 이러한 主治에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淸心蓮子湯과 淸心山藥湯이 『草本卷』 九味天門冬湯에서부터 시작된 處方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단위 : 錢>

藥物	草本卷 九味天門冬湯	甲午本 淸心山藥湯	甲午本 淸心蓮子湯	初版本 淸心蓮子湯
蓮子肉		1	3	2
麥門冬	1	1	2	1
天門冬	1	1	1	1
山藥	1	3	1	2
遠志	1	2	1	1
栝子仁	1	1	1	1
酸棗仁	1	1	1	1
龍眼肉	1	1	1	1
桔梗		1	1	
黃芩		1	1	1
石菖蒲	1	1	1	1
甘菊花	1	0.5	0.5	0.3
蘿菔子				1

7) 皂角大黃湯

<단위 : 錢>

藥物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
大黃	4	1
黃芩	1	
麻黃	1	
升麻	1	3
桔梗	1	
猪牙皂角	1	1
葛根		3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皂角大黃湯과 『初版本』 新定方の 皂角大黃湯은 藥物的 용량과 종류

에 있어 변화가 있다. 『甲午本』 皂角大黃湯은 大黃 四錢 黃芩 麻黃 升麻 桔梗 豬牙皂角 各一錢이 쓰였고, 『初版本』 皂角大黃湯은 『甲午本』 處方에서 大黃을 3錢 줄이고, 升麻를 2錢 늘였으며, 黃芩 麻黃 桔梗을 去하고 葛根 3錢을 加하여 升麻 葛根 各三錢 大黃 皂角 各一錢이 쓰였다.

『甲午本』 皂角大黃湯 관련조문<sup>22)</sup>은 모두 太陰人 外感腦顛病論에 기재되어 있으며, 『初版本』 皂角大黃湯 관련조문<sup>23)</sup>은 모두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皂角大黃湯에 대한 인식이 表病에서 裏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處方은 『甲午本』의 唐宋明 三代醫家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에 기재되어 있는 巽信 『萬病回春』의 二聖救苦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甲午本』 20조<sup>24)</sup>에서 二聖救苦丸은 大黃 四兩, 豬牙皂角 二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天行瘟疫에 사용되는 處方이다. 『東武遺稿』에서도 大黃과 皂角의 配伍로 사용되는 예가 기재되어 있는데 “太陰之人 中焦實而能堅忍 雖身病不寧 而猶起居動作 故太陰人 病臥枕席 而不能動作多日 則其病重矣

如此症 機如二十日 而免危也 又二十日而得愈 此俗稱之四十日痛 則傷寒也 始病五六日 熊膽三分發散 最爲上策也 皂角一錢半 大黃三錢 一次通泄 次計也 …”으로 皂角과 大黃을 『東武遺稿』에서 파악했던 통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熊膽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皂角과 大黃을 李濟馬는 太陰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升降開闔에서 開하는 성능의 통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인식하였고, 이러한 藥物로 表病을 해결하려고 하였다가 『初版本』에서 오면서 裏病에 사용하는 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인 葛根解肌湯, 麻黃發表湯, 麻黃定喘湯, 麝香散, 熊膽散, 清心蓮子湯, 皂角大黃湯의 7개 處方 중에서 單方인 麝香散과 熊膽散을 제외하고 5개의 處方은 藥物 구성과 용량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甲午本』에서 『初版本』으로 넘어가면서 東武는 기존에 있던 處方에 자신의 임상경험이 가해지면서 藥物을 加減하였고, 病證에 대한 인식 조차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表病과 裏病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甲午本』에서 表病에 기재된 處方들이 『初版本』에 와서 裏病에 기재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 6.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의 同名處方

『草本卷』에서 『甲午本』, 『初版本』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同名處方은 없다. 이는 단적으로 『草本卷』에서 太陰人 病證에 사용했던 모든 處方들이 『初版本』에 와서 모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은 거의 후대에 立方되었으며, 東武가 계속적으로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만 『草本卷』 九味天門冬湯이 『初版本』 清心蓮子湯의 藥物 구성과 유사하다는 점, 『草本卷』 生脈散<sup>25)</sup>이 『初版本』 補肺元湯<sup>26)</sup>과 藥物 구성이 동일하고 용량이 다르다는 점은 『草本卷』에서 인식했

### 22) 甲午本 皂角大黃湯 관련 조문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五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當用葛根解肌湯 黑奴丸 藥不可以不盡善擇美 則此證 當用加減解肌湯 皂角大黃湯

二一條.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發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咳嗽 稠粘噴嚏

二二條. 今考更定 已上諸證 目痛 鼻乾 增寒壯熱 燥澀者 當用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項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者 當用桔梗生脈散

### 23) 初版本에 기재된 皂角大黃湯 관련 조문

『太陰人 肝受熱 裡熱病論』

13-11.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發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咳嗽 稠粘噴嚏

13-12. 論曰 右諸證 增寒壯熱燥澀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氣湯 頭面項頰 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黃芩

### 24) 二十. 萬歷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士民多斃 其證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豬牙皂角二兩 麵糊和丸 綠豆大 五七十九丸 一服即汗 一汗即愈 粟壯者 百發百中 皂角 開關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 通其裏

던 處方 개념들이 『初版本』에 와서도 약간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III 結論

1. 『東武遺稿』에 四象人 藥材類의 藥物 선택기준은 『東武遺稿』에서 나타난 馨臭液味, 升降開闔의 이론에 의한 것이다.
2. 『草本卷』에서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에까지 나타나는 공통藥物은 27종이며, 이 藥物들은 太陰人 病證을 해결하는데 要藥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草本卷』 太陰人 新定方과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の 同名處方は 4개이며, 이 處方들을 사용해서 해결하려 했던 『草本卷』의 病證 개념은 『甲午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4.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の 同名處方は 7개며 이들 同名處方의 가장 큰 변화는 病證에 있어서 表病과 裏病에 대한 인식이다.

5. 『草本卷』,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에서 모두 나타나는 同名處方은 없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初版本』 太陰人 新定方이 후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參 考 圖 書

1.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1999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原人手抄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1999.
3. 김달래. 東醫壽世保元 草藁. 정담. 1999
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1994
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6. 전국한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집문당. 1998
7.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1929

25) 牛脈散 : 麥門冬 三錢, 五味子 二錢, 桔梗 一錢

26) 補肺元湯 : 麥門冬 三錢, 桔梗 二錢, 五味子 一錢